

朝鮮日報

최문찬 부의장 賞받아

최문찬 대구시의회 부의장<사진>이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예산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지난 23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주관으로 열린 '2006년 제3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해 180여개에 이



르는 대구시 각종 위원회의 방만하고 불합리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의 공개모집, 지나친 중복과 연

임 제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2007년 02월 26일 t14면

투자사업이 방만하게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회의 동의절차와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조례상을 충남도의회가, 우수 기관상을 제주도의회와 경남 거창군의회가 각각 수상했다. 박원수기자